

제19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 서면축사

존경하는 동포 경제인 여러분, 국내 기업인과 내외 귀빈 여러분,
‘제19회 세계한상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대회를 치르지 못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올해 세계 각지의 한상 여러분을 고국에 모시고,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함께 해주신 44개국 380여 명의 동포 경제인과 830여 명의 국내 기업인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상 기업인 한분 한분은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관입니다.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세계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넓혔고, 성장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계로 진출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손을 굳게 잡아 주었고, 현지 동포사회의 발전과 코로나 극복에도 앞장섰습니다. 저는 순방 때마다 우리 한상들을 보며 큰 힘을 얻습니다. 척박한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에는 GDP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고,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았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최초의 나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한상을 비롯한 재외동포들과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이제 스스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새로운 꿈을 꿀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을 논의합니다.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의 상생발전에 애써온 여러분들이 또다시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입니다.

결실의 기쁨을 나누는 가을, 오랜만에 방문한 모국에서 새로운 여유와 활력을 가득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